

>> 인쇄단체 · 기관 뉴스

◆ 동 정

- ▶ 김국진 대한인쇄문화협회 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인협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 리우식 대한인쇄문화협회 미디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일 오전 11시 인협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 ▶ 리우식 인쇄문화경영자동우회 회장은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30분 엠배서더호텔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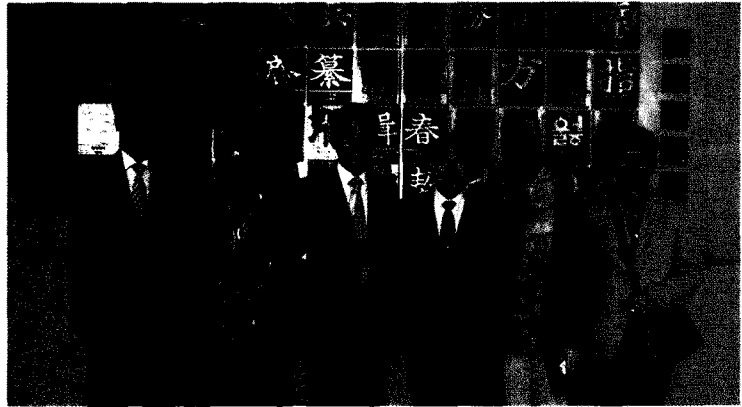
◆ 부 음

- ▶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부친이 지난 5월 18일 별세했다.
- ▶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부친이 지난 5월 14일 별세했다.
- ▶ 김영관 (주)에드맨 대표의 모친이 지난 4월 24일 별세했다.

◆ 화 촉

- ▶ 조상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이 지난 5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오규남 전 두산인쇄 사장의 장남 준호 군이 오는 6월 9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화촉을 밝힌다.
- ▶ 김정만 (주)명진문화 대표의 차남 주철 군이 지난 5월 22일 창원 엘리아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이해수 유한사 대표의 장남 주만 군이 지난 5월 22일 고양종합운동장 웨딩부페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이정희 (주)성진애드컴 대표이사의 차남 성진 군이 지난 5월 14일 웨딩의전당 2층 토포스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백승호 반월문화인쇄사 대표의 장남 종근 군이 지난 5월 14일 방배동성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 ▶ 홍진석 유천문화사 대표의 장녀 혜영 양이 지난 5월 1일 섬유센터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유병남 신영사 대표의 장녀 한나양이 지난 4월 30일 삼우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박은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지난 5월 27일 컨벤션H에서 화촉을 밝혔다.

문화부 출판인쇄과장 등 인협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과 윤문한 과장과 유향옥 사무관, 권오준·이숙은 주무관이 지난 5월 17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 김남수 회장, 유창준 전무이사와 인쇄문화산업계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수 회장은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창준 전무이사가 협회 현황과 인쇄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문한 과장은 “인쇄문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진흥계획을 잘 마련하여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교환이 끝난 후 인쇄문화회관 5층의 인쇄역사관과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인쇄문화교육관을 돌아보았다.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제안서 설명회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 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김국진) 주최의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진흥계획 제안서 설명회가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인쇄문화회관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스마트미디어의 이만희 이사가 ‘QR코드의 인쇄업계 활용방안’,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와 이상남 교수가 ‘한국인쇄기술 핸드북 제작 및 인쇄사업’, ‘전자책 발전에 따른 하드카피 산업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방안’, ‘한국 고인쇄물의 발굴 및 과학적 분석과 보존방안’에 대해 각각 PT를 했다. 이날 제안서 설명회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민창준 부회장, 이광재·정용식 협회 운영위원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제안서 설명회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5개년 진흥계획 마련을 위해 각 단체 및 언론사, 학회, 업계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여기서 채택되면 진흥계획에 포함되게 된다.

▼ 서울조합 책자부회 간사장에 김영철 사장



서울시인쇄정보조합 책자인쇄부회 신임 간사장에 김영철 두성칼라 대표가 선출됐다. 동 부회는 김남수 간사장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취임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간사장에 두성칼라 김영철 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 신임 총무에 대진프린텍 구양모 사장을 선임했다. 김남수 간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기 5년을 대과없이 간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임 간사장님을 중심으로 선임부회로서의 역할과 업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호 서울조합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조합에서는 인쇄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인쇄가격 기준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영철 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임 간사장님들의 공을 잇고 선임부회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인협, 인쇄전문인력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의 무상 교육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인디자인 편집실무 과정(매주 화요일), 인쇄물 무역실무 과정(매주 목요일) 등 2개 과목이 개설되며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인디자인 편집실무 과정은 김명인 어도비 국제공인강사(에어모바일 대표)가 진행하며, 인쇄물 무역실무 과정은 이국홍 (주)아시아프린팅 대표이사(협회 국제경쟁력강화위원장), 배성민 (주)글로벌프린트팩 대표, 김춘옥 청아문화사 해외영업팀장이 진행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 제공된다. 각 과정당 30명씩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협회 사무국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_ www.print.or.kr, 전화 (02)335-5881~3

◆ 이전

- ▶ 경남인쇄사(김종호)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5가 20-21 삼오빌딩 별관으로 이전했다.
- ▶ 고대닷컴(대표 문중대)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5가 22-16으로 이전했다.
- ▶ (주)디지털명성텍(대표이사 강병권)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1가 43-3 지중해빌딩으로 이전했다.
- ▶ 광장인쇄(주) (대표이사 강계향)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3가 40-2 정진빌딩3층으로 이전했다.
- ▶ 아이씽크피앤피(주) (대표이사 김정홍)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저동2가 48-11로 이전했다.
- ▶ 반디컴(대표 원도상)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705호로 이전했다.
- ▶ 이케이커뮤니케이션(대표 노은경)은 최근 사업장을 송파구 송파동 21-1 다원빌딩6층으로 이전했다.
- ▶ 구암종합인쇄(대표 김상돈)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예관동 70-17로 이전했다.
- ▶ (주)일진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신오식)은 최근 사업장을 강남구 논현동 13-22로 이전했다.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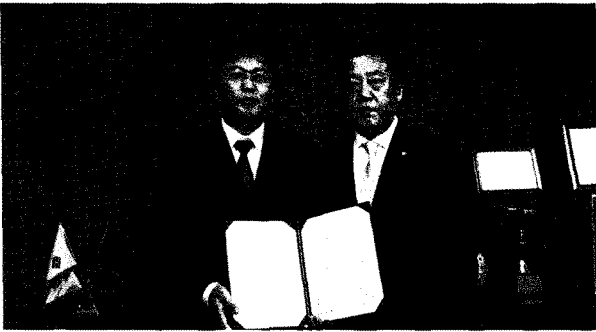
- ▶ 사단법인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최근 협회명칭을 사단법인 대한인쇄기술협회로 변경했다.
- ▶ 대화특수인쇄공사(대표 김정전)는 최근 업체명을 대화UCP로 변경했다.
- ▶ (주)삼성비스콕(대표이사 장세람)은 최근 업체명을 (주)삼성비스콕으로 변경했다.
- ▶ 건양사는 최근 대표자를 이병수씨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808호로 이전했다.

▼ **서울조합, 2011년도 경영자세미나 개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오는 6월 10일 '2011년도 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경영자세미나는 오후 2시 한옥마을에서 집결해 남산한마음대행진(인쇄강령 선포 등)을 가진 후 동국대학교로 이동,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영자세미나는 송경철 박사가 'TC130 표준화'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 박사가 '현대경영의 이해'에 대해,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이의수 학장이 'RIS사업단'에 대해, 서울인쇄센터에서 '디지털인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 **서울조합, 권성원 조합 고문 변호사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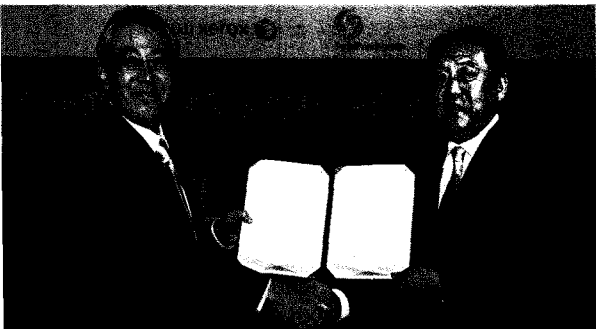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최근 권성원 변호사(법무법인 흥인)를 조합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남원호 이사장은 "권성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밝히면서 "조합원사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원 고문 변호사는 "조합원사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후지제록스, 서울인쇄센터와 MOU체결**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4월 28일 서울인쇄센터(이사장 남원호)와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 확대 및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이

번 협약에 따라 서울인쇄센터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인쇄 관련 교육과 컨설팅에 대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인쇄기와 솔루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에도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디지털 인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서울인쇄센터와 함께 협력해 국내 인쇄 시장을 보다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며 "우리가 가진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과 고객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내 디지털 인쇄 시장의 규모는 전체 인쇄 시장의 10%인 약 8500억 원 규모로 지난 2006년의 3500억원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후지제록스는 전했다.

▼ **제9회 인쇄문화인 낚시대회**



인쇄문화인낚시대회(회장 한용근)의 시조회가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백학저수지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전날 천등, 반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로 인해 취소가 우려되었으나 일기가 호전됨에 따라 무사히 개최되었다. 이날 대어 1등상은 30cm를 잡은 이능형 명신씨앤피 대표가 차지했으며 대어 2등상은 노주현 진양인쇄공사 대표, 3등상은 H.B코퍼레이션 대표, 4등상은 대산그라픽 임용병 대표, 5등상은 명성금박 강태원 대표에게 돌아갔다. 한편 눈치 28cm를 잡은 최호경 현대미술 대표는 행운상을, 안길웅 만중문화사 대표는 퀴즈상을 받았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쇄업체도 사법처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거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오피스텔 성매매유인 전단지, 키스방·마사지업소의 호객용 전단지 등에 대해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장소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여 이를 배포하면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인쇄한 인쇄업체를 적발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의거 유해매체물 배포의 공범으로 사법 처리된다.

▼ 콘텐츠 분쟁을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4월 27일 출범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콘텐츠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콘텐츠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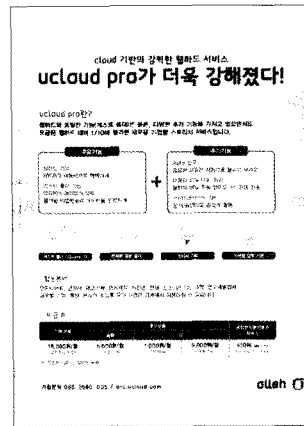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및 온라인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www.kcdrc.kr)를 운영하고 있다.

▼ 서점연합회 새 회장에 박대춘씨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한국서련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대춘 한국서련 부회장을 새 연합회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창연 전 회장은 2013년 초까지 2년여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난 4월 22일 이사·조합장 회의에서 "이제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겠다. 새로운 임원진과 조합장이 뚝뚝 뭉쳐서 서점인들의 권익을 옹호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사퇴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박대춘 신임회장은 "유명무실해진 '도서정가제', 작은 서점에겐만 불리한 '도서공급률', 학원내에서의 학습서 판매, 대형서점의 지방 진출 등으로 생존마저 힘든 서점가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업계의 단합을 당부했다. 한편 2011년도 제61차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201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진행됐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 KT, '유클라우드 홈' 무료 저장공간 50GB로 확대

최근 KT가 '유클라우드 홈' 서비스의 기본 저장공간을 50GB로 늘렸다. KT는 아이패드2 출시에 발맞춰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유클라우드 홈 서비스를 기존 20GB에서 50GB로 확대 제공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유클라우드 홈은 N스크린을 지원하고 실시간 자동 동기화 기능을 제공해 개인의 데이터를 PC와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신도리코, 소비자만족 자율 관리시스템 도입 선포식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지난 5월 16일 사무기기업계 최초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시스템(이하 CCMS: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도입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도리코는 이날 선포식에는 최고 경영자와 CCMS 프로그램 실행을 담당하는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상된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세밀하고 철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신도리코는 기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한편, 내부 프로세스 구축 및 정기 회의를 실시하여 신도리코만의 CCMS 실행 지침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매뉴얼로 제작 및 배포하여 직급별,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프로세스에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도리코 김성용 이사는 "전국 200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CCMS를 앞장 서 도입하게 되었다"며 "전사적으로 구성된 CCMS를 통해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철저한 고객관리 문화를 정착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도GL/성도솔루션, KPCA Show 2011 참가



(주)성도GL/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11 KPCA Show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축적된 기술과 참신한 제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 전시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성도GL/성도솔루션이 출품한 제품 중에 후지필름의 Super Micro Photo Plate 'VM·GPC'는 바이올렛레이저 이미징, 초미립자 Emulsion을 사용한 제품으로 고정밀도 Master Mask 생산에 적합한 고해상도 Glass 제품이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5nm라인의 Fine Pattern을 실현하고 있으며 명실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하여 향상된 작업 공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PC층(Protect Coating Layer)강화로 이물질 부착 방지와 Trouble 개선시킨 신 개념의 제품이다. 또 다른 제품인 후지필름 New Laser Plotter Film 'XPR·7S'은 Red LD 또는 He·Ne Laser Plotter를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XPR·7S는 고난도의 초정밀 한 Line Pattern 실현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점의 최소화를 실현하여 HDI/Package PCB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상액으로 인한 화학적 변화를 최소화하여 현상 안정성을 실현시켰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제품의 전시와 성도의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스를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으로 받았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성도GL/성도솔루션, 전 직원 대상 마케팅 교육



(주)성도GL/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5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마케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해 이뤄 졌으며 다양한 마케팅 사례들을 분석하고 맞춤 강의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성도GL/성도솔루션의 직원들은 교육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국에이버리, 연세대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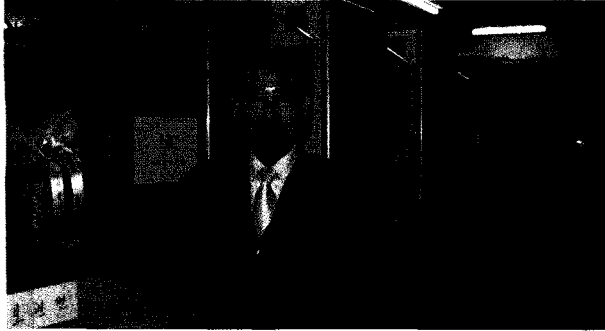


한국에이버리(대표 송경환)는 지난 5월 3일 충주공장에서 연세대 패키징학과와 함께 산학협력 기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이후 전국의 인쇄 및 패키징학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유일의 포장전문 과정인 연세대 패키징 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사 소개와 함께 점착라벨의 전반적인 원리와 구조, 종류 및 적용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 실제 샘플과 함께 참가자들의 점착라벨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으며 인몰드, 수축라벨, 스크린 인쇄 등 비 점착라벨 방식과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적용처 또는 소재별로 올바른 라벨링 기술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에이버리 데니슨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특수 라벨에 대한 소개도 진행되어, 가공용 및 신선육 포장 시 널리 사용되는 수축필름에 그래픽 구현성이 우수한 점착라벨의 장점을 결합한 Fasson Shrink PS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에이버리 마케팅 팀장인 홍준규 부장은 "본 행사는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에 우리 회사와 점착라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채용진행 시 산학 협력교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인재를 확보하는 윈-윈 전략 실현의 좋은 예로 평가 받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 지원과 관계구축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연세대 패키징학과의 박수일 교수는 "패키징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패키징 산업 발전을 함께 견인해 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에쓰비프린팅, 미쓰비시 대국전 5색 도입**



(주)에쓰비프린팅(대표이사 김성배)은 지난 3월 24일 미쓰비시 대국전 5색 인쇄기 도입식을 가졌다. 이날 도입식에서 김성배 대표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객들에게 정확한 납기에 고품질의 인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형 장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예림인쇄
아그파 아발론 N8 및 아주라 무현상 시스템 설치**



예림인쇄(대표 박재성)는 최근 아그파의 아발론(:Avalon) N8 및 아주라(Azura) TS 무현상 판재 시스템을 도입,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림인쇄는 이번의 신규장비 도입에 대해 사업성과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예림인쇄의 박재성 사장은 “인쇄시장의 고객들은 소량 다품종, 고품질 인쇄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기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고 고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아그파 아발론(:Avalon) N8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아그파의 장비를 접하면서 무현상 판재시스템과 무현상판인 아주라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여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최고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친환경 경영, 그린비즈니스를 몸소 실천하는 미래형 인쇄업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도입소감을 밝혔다.

무현상 판재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담당인 아그파의 이한광 부장은 “아주라 TS는 아그파가 보유하고 있는 Thermofuse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친환경적인 무현상 판재로 안정적인 제판품질, 친환경적인 사용환경, 폐수발생량의 획기적인 절감을 실현한 솔루션이며 전 세계 무현상 판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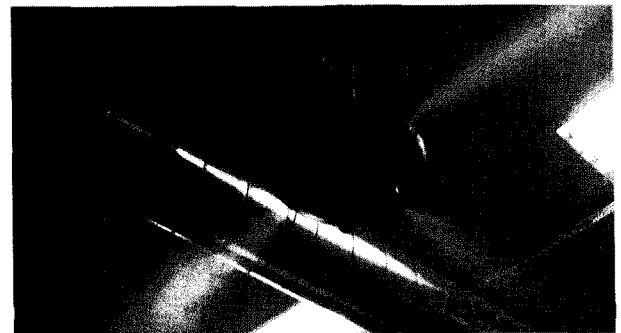
▼ **아그파코리아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와 전략적 제휴**

아그파코리아(대표 권순기)는 Krause사의 국내대리점인 시스템테크놀로지서비스(이하 STS)와 신문사 CTP시장을 위하여 최근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그파는 판재를 비롯한 소모품을 공급하고, STS는 Krause사의 CTP장비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 아그파는 상업인쇄뿐만 아니라 신문사 시장을 위한 무현상 판재를 전세계 100여개 이상의 신문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신문사 시장이 CTP시장으로 전환, 활성화됨으로 앞으로 무현상 플리머 판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STS는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대형신문사에 최신의 높은 생산력을 가진 CTP장비를 10여대 이상 공급했으며 가까운 시일내로 시간당 250장 이상의 초고속 CTP 장비를 한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그파코리아는 양사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사의 장점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가경쟁력을 통하여 한층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신문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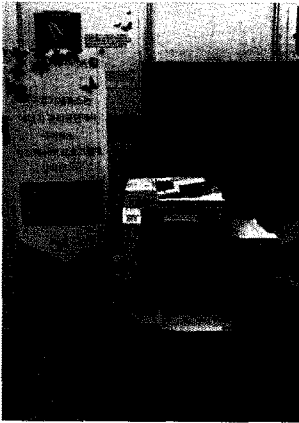
▼ **신안테크, 해내리에 가습기 KBN-604 설치**



신안테크(주) (대표이사 김순호)는 일본 KIDA사의 업그레이드된 가습기 KBN-604를 서울 성수동에 소재한 (주)해내리(대표 송영덕)에 공급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내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쇄 품질,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KIDA사의 가습기 KBN-604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설치한 KBN-604 가습기는 저소음과 미려한 디자인을 갖춘 친환경 제품으로 건조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를 최대한 억제시켜 작업 효율을 증가시켜 주며, 에어 사용량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대폭 감소해 유지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가습 효율은 더욱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해내리의 송영덕 사장은 “새로운 인쇄기 도입과 최고의 인쇄 품질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습기 설치를 결정했으며 정전기 발생과 용지 신축 방지 및 청정한 공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가습기 가운데 일본 KIDA사 제품이 미려한 디자인과 안정성 및 가습 성능이 우수하여 선택하게 되었다”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 한국후지제록스, 환경행사에 친환경 제품 선보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지구와 나를 위한 행복심기' 행사에 참가해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

었으며 코엑스 주변에 나무를 심는 식목 행사와 에너지 체험 행사 등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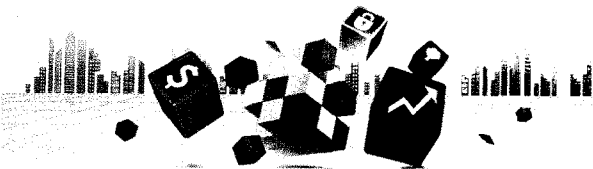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날 행사에 최신 복합기를 전사해 그린 오피스 구현을 지원하는 친환경 기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시된 컬러 복합기 아페오스포트?TV C5570은 후지제록스의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대거 탑재한 제품으로 옥수수 소재의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제품의 일부에 사용했으며 LED(발광 다이오드) 프린트 헤드 기술을 적용해 전력 소비를 기존 모델 대비 70%까지 줄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후지제록스 김수영 전무는 "나무 심기, 에너지 체험 등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후지제록스는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 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탄소캐시백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환경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포럼 개최

Canon

Canon Business Solutions Forum
2011 in Seoul

change
Any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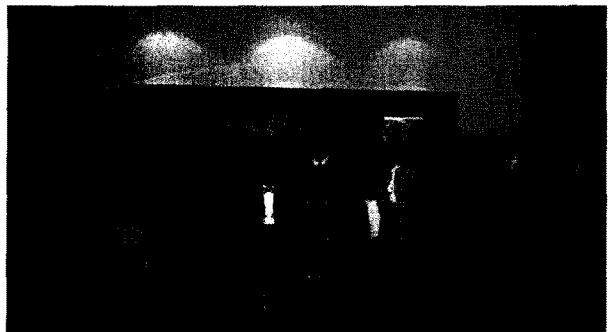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대표 김천주)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Canon MDS(Canon Managed Document Services), 클라우드 서비 등을 소개하는 'Canon Business Solutions Forum 2011 in Seoul'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hange Anywhere'이라는 콘셉을 내세운 이번 포럼을 통해 캐논코리아는 오피스 시장은 물론, 디지털 프레스 시장에까지 캐논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포럼은 'Small Office Zone', 'Middle Office Zone', 'Enterprise Office Zone', 'Digital Press Zone' 등

규모 및 특성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진행되었다.

특히, 'Digital Press Zone'에서는 캐논 하이엔드 장비를 활용해 문서 편집 및 인쇄 워크플로 자동화 서비스 등 스피디한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대형 프린터의 고해상도 컬러를 체험할 수 있는 'LFP Zone'도 마련됐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프린팅 제품과 기술력, 솔루션, 인적 지원, 고객 서비스 등 기업 고객의 규모에 맞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솔루션 시장 내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성도GL/성도솔루션 가족 위한 제1회 퍼플 콘서트 개최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성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5월 28일 헤이리의 미술관 공간 퍼플에서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퍼플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유영옥 교수의 피아노 연주회로 진행되었으며 클래식을 기본으로 한 작품과 친숙한 영화 삽입 음악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성도GL/성도솔루션에서는 자연과 하나되는 미술관 공간 퍼플에서 소중한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퍼플 콘서트를 개최하여 따뜻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경영과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간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 동양잉크, 우수대리점 사장단 중국투어 실시



동양잉크(대표 최대광)는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우수대리점 사장단에게 중국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

리점주 17명, 동양인크 임원 및 영업팀장 6명은 동양인크 중국 법인인 제남항관유목 유한공사 공장 견학 및 중국투어를 통해 동양인크의 제남 신공장, 태산, 만리장성, 청동릉, 자금성 등을 둘러보고 신공장 견학 및 다양한 중국 현지 문화와 유적지를 경험하고 돌아왔다. 동양인크 관계자는 이번 중국투어를 통해 우수 대리점과 동양인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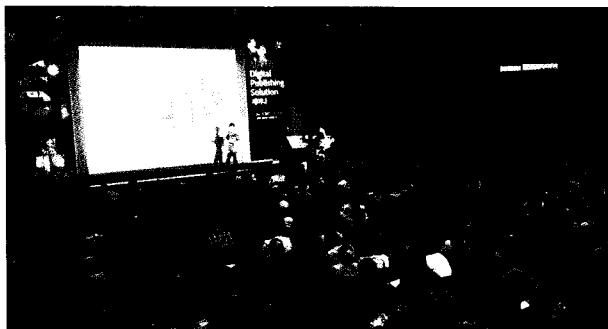
▼ 한국학술정보 북토리, 2년 연속 대표브랜드 선정

한국학술정보(주) (대표이사 채종준)의 주문형 출판 서비스 '북토리(www.booktory.com)'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출판인쇄 부문에서 '201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분야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초 상기도, 브랜드 신뢰도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부문별 대표브랜드를 선정해 진행되었다. 북토리는 작년에 이어 모든 항목에서 경쟁업체에 우위를 나타냈으며 브랜드 충성도 점수에서는 총 응답자 중 과반수(56%)의 지지를 얻었으며, 경쟁업체에 비해 두터운 고정 고객층이 급변수상의 밑거름이 되었다. 북토리는 디지털인쇄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대 규모의 POD(Publishing On Demand)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인쇄물 형태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소량의 책자를 인쇄하는 소량 인쇄 개념에 그쳤지만, 현재는 소량 다품종 개인 출판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솔루션을 통한 고객 편의성 및 아이템 제공 측면에서 차세대 출판인쇄 선두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학술정보(주)의 사업본부장 이대진 전무는 "디지털인쇄의 장점인 '필요한 만큼 인쇄하는 POD'는 별도의 초기 비용 없이 인쇄와 출력이 가능하여 저비용 고효율이며, 불필요한 용지와 잉크를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와 원가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출판산업의 미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학술정보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번 2011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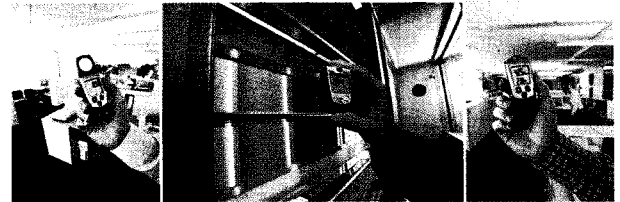
▼ 어도비, 디지털퍼블리싱 솔루션 세미나 개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4월 26일 삼성동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ADOBE Digital Publishing Solution)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판 전문가를 위해 마련된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 세미나'에는 출판 업계 관계자 및 개인 9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어도비의 디지털 퍼블리싱 기술과 최근 발표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5.5 소개와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는 출판 현업 종사자들의 발표로 이어졌다. 우선,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최승현 부장의 '차세대 디지털 출판'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어도비시스템즈 강진호 이사가 '멀티스크린 사용자 경험을 위한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를 소개했다. 이어서, 국내·외의 출판 현장에서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도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중앙 m&b와 두산매거진 그리고 미디어 그룹 인포더의 해외 디지털 잡지 발행 사례가 소개되었고, 디자인 단계부터 앱스토어 등록까지의 전반적인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통합 프로세스도 소개되었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

▼ 테스토코리아, 미니 측정기 포켓라인-스틱형 출시



테스토코리아(지사장 이명식)는 다양한 실내환경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테스토 포켓 시리즈 측정기를 선보였다.

테스토 포켓 시리즈 측정기는 일상적인 측정활동에 최적화된 측정기로서 한 손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서 이동이 편리하고, 정밀한 전문측정기술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또 디스플레이에 백라이트 기능과 전원 자동종료 기능이 있어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온도, 습도, 빛, 풍속 등 다양한 측정분야 중에서 필요한 측정기만으로 시리즈를 구성할 수도 있다. 포켓 시리즈에는 적외선으로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의 온도 차이를 표시하는 적외선온도계, 습도 센서가 내장으로 대기 중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자재의 수분상태를 측정하는 목재 수분 측정기, 온도 및 공기밀도 보상기능의 차압계, 절대압력 및 대기압 계산과 고도를 측정하는 절대압력계, 광학방식으로 최대 29,999RPM까지 측정하는 RPM 측정기, 조도계, 풍속계가 있으며, 팬 타입의 침투용 온도계, 표면용 온도계, 대기 온습도계, 열풍속계도 있다.

테스토코리아 관계자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강력하고 정밀한 최상의 기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포켓 시리즈 측정기"라고 말했다.

홈페이지_ www.testo.co.kr

▼ 테스트코리아, 2011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참가

테스토 코리아(지사장 이명식)는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 '2011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업그레이드와 함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 데이터로거를 비롯해 발당 및 설비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적합한 테스트 열화상 카메라, 무선온습도 측정 시스템 사베리스, 연소가스측정기 testo 340과 testo 308, 편리한 냉매 측정을 위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작고 편리한 포켓라인 등을 선보였다. 테스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자동화 분야의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테스트의 정밀 측정 장비와 신제품들을 직접 확인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독일의 첨단 정밀 기술을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_www.testo.co.kr

▼ 캐논, 'TPA 어워드 2011' 3개 부문 수상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이사 강동환)이 유럽 이미지 출판 협회(Technical Image Press Association, 이하 TIP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진·영상 관련 시상식인 'TPA 어워드 2011(TIPA Awards 2011)'에서 3개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TIPA는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지역 14개국을 대표하는 29개 사진, 영상 전문 매체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TIPA는 카메라 및 영상 관련 제품 중 매년 부문별로 최우수 제품을 선정해 'TPA 어워드'를 수여해오고 있다. 캐논의 'EOS 600D'는 최고의 엔트리 DSLR 카메라에게 주어지는 '2011 최고의 엔트리 DSLR 카메라'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EOS 600D'는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편한 뛰어난 성능을 갖춰 심사위원들로부터 '콤팩트 카메라에서 DSLR로 옮겨가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카메라'로 평가받았다. 한편, 캐논은 EOS 600D와 함께 콤팩트 카메라 '파워샷 SX230 HS', 전문가급 렌즈 'EF 70-200mm f/2.8L IS II USM'이 각각 '2011 최고의 수퍼줌 카메라'와 '2011 최고의 프로페셔널 렌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강동환 사장)은 "DSLR과 콤팩트 카메라 그리고 렌즈까지 TIPA 어워드를 수상한 것은 캐논의 우수한 광학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좋은 제품을 통해 수상의 영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_www.canon-ci.co.kr

▼ 애플, 아이맥 신제품 출시

애플이 데스크톱PC '아이맥'을 지난 5월 3일 출시했다. 새 아이맥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처리 속도가 70% 향상됐으며, 신제품 가격은 21인치 모니터 모델이 1199달러, 27인치 모니터 모

델은 1699달러다. 아이맥 신제품은 인텔의 최신 칩인 '샌드브릿지'를 채택했다. 샌드브릿지는 연산과 그래픽을 하나의 칩에서 처리하는데, 샌드브릿지를 탑재한 덕분에 아이맥 신제품은 과거 제품에 비해 처리 속도가 70% 빨라졌고 그래픽 처리 능력도 세배 정도 향상됐다. 이 제품은 또 인텔의 고속 데이터 전송 단자인 '썬더볼트'를 탑재했는데, 썬더볼트는 USB 단자와 비슷하지만 보통 USB 단자보다 전송 속도가 20배 빠르고 최신 USB 단자인 USB 3.0보다도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올 초 출시된 맥북프로에도 썬더볼트를 탑재한 바 있다.

>> 출판 · 관련업계 뉴스

▼ 중소출판사 청년인턴지원 하반기에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중소출판사대 상 청년인턴지원사업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출판사 청년 인턴 사업은 청년 인턴을 신규로 채용할 중소 출판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판사에는 청년 인턴의 인건비 일부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소 출판사는 신규 채용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 미취업자는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상반기에 '내 인생의 책' 등 10개 출판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청년인턴 지원 대상으로 '푸른 책들' 등 10개 출판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해당 출판사는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청년 인턴 인건비의 50%(1인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 시에는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인턴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에서 얻을 수 있다.

▼ 출협, 만나고 싶은 작가 설문조사 실시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국내 작가는 공지영 씨, 출판사는 문학동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열리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독자의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번 설문은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고 싶은 국내외 작가 & 출판사, 그리고 가장 읽고 싶은 책' 등 4가지 문항을 직접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 교보문고 사이트와 오프라인(교보문고, 정독도서관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참여 인원은 2,300여 명이었다. '2011 당신이 가장 읽고 싶은 책'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가 설문 참여자 2215명 중 339명이 응답해 '올해 가장 읽고 싶은 책' 1위에 선정됐다. '2011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나고 싶

은 출판사'에 김영사, 문학동네, 민음사, 열린책들, 창비 등이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11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는 6월 15일부터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A, B홀)에서 개최된다.

▼ 문화부, 전자책 제작 변환 솔루션 개발 무료공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손쉽게 양질의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책 제작·변환 솔루션'을 개발해 지난 4월 25일부터 무료 배포에 나섰다. '전자책 제작·변환 솔루션'을 통해 전자책 제작자는 직관적인 '화면 구성(UI)'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출판용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종이책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데이터 역시 손쉽게 전자책 파일(ePub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전자책 제작·변환 솔루션'을 다운받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출판인회의(02-3142-2333, www.kopus.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 제지 뉴스

▼ 컨트롤유니온 지속적으로 FSC 인증 사업 전개



산림조합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역조합은 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 선코리아(지사장 홍리)를 통해 FSC FM 사유림 인증을 받았다. 컨트롤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산림조합중앙회가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1월 순창산림조합, 2월 임실산림조합, 3월 홍천산림조합, 4월 삼척산림조합이 각각 인증을 받았다.

컨트롤유니온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진행되었던 FSC FM인증이 최종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유림이 전체 산림의 7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FSC인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FSC FM인증을 통해 경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지난 3~4월 두달 동안 목드림 회사(서림목재, 조흥물류), 칩공장(남원산림조합, 대경목재), 인쇄(삼조인쇄, 금명, 글로벌 프린트팩), 디자인(국보디자인) 등이 컨트롤유니온을 통해 FSC COC 인증을 받았다.

▼ 한솔제지, '고객가치창출' 활동 확대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고객가치창출' 활동을 전사적인 고객가치 혁신 활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alue·Up 파트너'로 명명된 금번 활동은 '고객가치창출팀'이라는 별도의 솔루션 제공 조직의 활동에 더해 전 영업사원이 고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의 성과 창출과 성장을 돕는 활동을 뜻한다. 이를 위해 한솔제지 및 아트원제지, 유통계열사 영업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솔루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에너지, 공정관리, 인쇄, 혁신, IT 등) 전문가 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솔제지는 고객가치창출 활동은 기존의 단순히 물건을 파는 영업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Solution Provider로, 이에 더해 고객의 영업 활동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컨설턴트로, 최종적으로는 고객 성공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 한솔제지, 한원석 작가에 친환경 용지 협찬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갤러리 압생트에서 열린 작가 한원석씨의 개인전 '화해(花解)'의 도록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 전량을 친환경용지로 협찬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친환경용지와 한작가의 작품 컨셉이 잘 맞아 떨어진다 고 보고 이번 후원을 결정했으며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친환경 공공구매 박람회의 한솔제지 부스에도 한 작가의 작품 일부를 전시했다. 한원석 작가는 페스피커, 담배꽂초 등과 같이 사회로부터 버려진 것들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환생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 한솔페이퍼유통, 인쇄밀집지역서 홍보활동



한솔페이퍼유통(대표 박경재)은 변경된 사명 홍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 충무로, 구로, 성수동, 파주 등 인쇄소, 출판사, 지류 유통점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3차리에 걸쳐 진행된 거리홍보 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출근시간을 이용, 총무로와 을지로 거리 및 지하철역 입구에서 한솔 조끼를 착용한 직원이 우수한 제품과 고품질 물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홍보물 및 전단을 하루 평균 3천명의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 일정에 맞춰 인쇄, 종이 관련 주요 매체에 광고를 게재했으며, 종이컵 홍보물을 을지로, 총무로 지역 및 주요 고객사에 배포했다. 한솔페이퍼유통은 앞으로도 차량 랩핑 광고 진행 및 추가 방문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솔제지, 국제자원순환산업전 참가**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Tech 2011)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주최로 실시된 이번 전시회는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친환경 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기획되었다. 한솔제지는 제지사로써 유일하게 초대받아 가족사인 아트원제지, 한솔PNS 지류유통부문, 한솔페이퍼유통과 공동부스를 마련하고 전시장을 찾은 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친환경 아트지 블루아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용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한솔제지 부스는 '친환경 개구리'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참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한솔제지 고객사인 비상교육의 양태희대표가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내용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무림P&P, 펄프-제지 일관화공장 준공**

무림P&P는 지난 5월 18일 이동욱 무림그룹 회장, 김민중 무림P&P 사장, 이상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회장 등 대내외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펄프-제지 일관화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무림P&P 일관화공장은 인쇄용지 연산 50만t 규모로 연면적 7만9582㎡, 건축면적 4만2895㎡, 건물 길이 627m, 건물 최대폭 98m, 최대 높이 43m로 단일기계 규모로 국내 1위다. 초지기의 지폭은 8.7m



로 역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무림P&P의 일관화공장은 투자비 총 500억원에 1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완공됐으며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산업생산에 들어갔다.

무림그룹 이동욱 회장은 기념사에서 "일관화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한 펄프-제지 일관화공장이란 점에서 한국 제지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림은 이 공장 준공을 통해 외국 대형 제지기업과 경쟁할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 추가증설을 통해 세계 속의 무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림P&P의 이번 일관화공장 준공에 따라 무림P&P, 무림페이퍼, 무림SP 등 무림 제지 3사의 인쇄용지 생산규모는 연산 120만t으로 늘어난다. 또 무림P&P는 오는 2015년까지 연산 50만t 규모의 일관화공장 2호기를 완공할 계획이다. 2호기가 완공되면 무림P&P는 연산 인쇄용지 100만t 규모로 확대된다.

▼ **한국제지, 신제품 '밀크' TV 광고 실시**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신제품 복사지 '밀크'의 제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ID광고(TV-자막광고)를 지상파 3사 중심으로 전국권 및 지역권(대구, 울산,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ID광고는 TV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고지 또는 방송사 고지 방영시 화면 하단에 자막형태로 10초간 집행되는 브랜드 광고로,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 **한국제지,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 구축**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영업사원들의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스마트폰과 연동한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모바일 조회시스템'은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당사 POP와 연동하여 생산계획, 재고현황 조회, 수송현황 등 영업사원들이 고객 상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많은 업무들 중에서 외부 영업활동 중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영업사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객 요구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제지 온산공장, 친선 축구대회



한국제지(대표 김창권) 온산공장은 지난 4월 28일 간부사원과 신입사원들 간의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온산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축구대회는 간부사원들과 신입사원들 간의 격의 없는 시간을 통해 친목도모와 신입사원들의 빠른 회사적응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는 전 후반 각각 30분씩 진행되어 3:1로 신입사원들이 승리했으며 경기 후에는 간단한 저녁식사 자리를 통해 상하 관계를 떠나 회사의 동료로서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 해외뉴스

▼ 독일 만로랜드 본사, 매업 서밋 성공적 개최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열린 독일 만로랜드가 주최한 매업 서밋(Sheetfed Summit)에 전세계에서 1000여명이 넘는 인쇄회사의 고객이 참가했다. 올해 열린 '매업 서밋'은 오렌지, 옐로우, 그린, 마젠타, 사이언으로 그룹이 나누어 각각의 고객 특성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상업인쇄와 패키지 인쇄에 대한 포럼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여러 워크숍과 현지 인쇄 회사 방문 등을 통해 만로랜드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의 상호 교류의 장이 되었다. 또한 기술 및 경제적 측면 모두를 다뤄 '매업 서밋'에 참석한 전세계 고객들에게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만로랜드코리아측은 열띤 호응 속에서 진행된 이번 '매업 서밋'과 관련한 정보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고객에게도 알리기 위해 별도의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코닥

ICGQ 오픈하우스에서 FLEXCEL NX 시스템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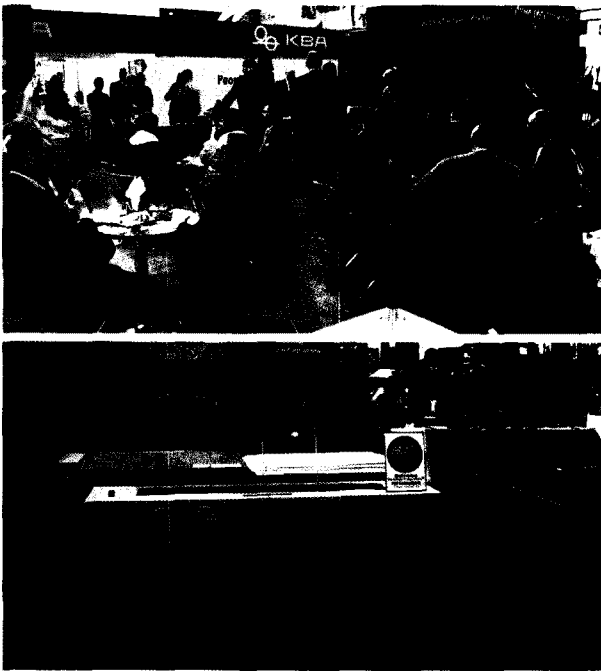
코닥은 Institut des Graphic du Quebec(이하 ICGQ)의 오픈하우스에서 코닥 FLEXCEL NX Digital Flexographic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번 오픈하우스에서 소개된 시스템은 포장 인쇄사업자, 소매상, 브랜드 소유자들이 생산을 간소화하고 운영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향상된 인쇄 품질로 영향력이 높은 포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코닥은 소개했다. 코닥은 고객들이 라벨, 포장, 접는 종이 용기 분야에서 플렉스 그래픽 솔루션을 사용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오픈하우스는 KODAK FLEXCEL NX Plates의 데모와 코닥 및 다른 플렉스 솔루션 공급사업자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었다. 코닥의 포장 사업 개발 매니저인 도우 바이즈는 "코닥 FLEXCEL NX 시스템은 플렉스그래픽 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으며 참석자들은 코닥 FLEXCEL NX Plates의 특성들이 얼마나 많은 전통적인 플렉스 관련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고객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공을 하도록 도와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코닥은 이외에도 코닥 프리너지 파워팩 워크플로, 코닥 인사이트 솔루션, 코닥 컬러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코닥 통합 워크플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쇄사들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과정을 간소화하는 측정 가능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코닥의 캐나다의 영업담당인 Mace Hoover는 "코닥은 패키징 솔루션분야에서 돋보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이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넘나들며 고객들의 성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닥의 FLEXCEL NX 시스템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www.kodak.com/go/packag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닥, 폴리그래피아 전시회서 호평

코닥은 PIF 메달 경쟁에서 명망 있는 상을 받으면서 폴리그래피아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전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제품군



은 코닥 PROSPER S5 임프린팅 시스템과 코닥 FLEXCEL NX 디지털 플렉스그래픽 시스템이었다. 폴리그래피아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무역박람회로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포츠난 국제박람회에서 열렸다. FLEXCEL NX System은 사용자가 플렉스 인쇄의 경계를 넓히도록 해주는 디지털 판재구성의 솔루션이다. 그 시스템은 고객들이 차별화된 인쇄 품질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생산 효율성을 통해 비용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폐기물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해 준다.

프로스퍼 S5 임프린팅 시스템은 코닥 프로스퍼시리즈인 임프린팅 시스템의 하나로 이 시리즈는 다이렉트 메일, 게이밍과 출판과 같은 개별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인쇄 인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박람회 동안 코닥 폴란드의 총괄 매니저인 Swapan Chaudhuri는 폴란드에서 주요 그래픽 아트 기관인 폴란드 인쇄사업자 모임이 주관한 “디지털 세상에서 책의 미래”라는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폴리그래피아 2011는 대략 1만3000명의 참석자들을 끌어들이고 인쇄 서비스 공급자, 광고 회사, 그래픽 스튜디오, 책바인딩 회사, 도매사업자, 특별 습들 그리고 소모품과 인쇄 액세서리의 공급자들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13개국에서 400개가 넘는 회사들이 그들의 최신 제품들을 선보였다. 전시자들의 다수(55%)는 인쇄 기계들과 부품들, 25%는 프리프레스 솔루션을, 나머지 20%의 전시자들은 바인딩과 후가공 장비들을 선보였다. Swapan Chaudhuri 매니징 디렉터는 “폴리그래피아는 코닥에게 매우 큰 성공이었으며 올해 쇼에서는 오직 9개의 금메달만이 수여되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가져온 것은 매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회사의 R&D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 머큐리사, 코닥 프로스퍼 5000XL 설치

디지털 책 인쇄업체인 머큐리 프린트 프로덕션은 코닥 프로스퍼 5000 XL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머큐리에서 설치한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는 머큐리의 디지털 역량에 인치당 175 라인에 가까운 오프셋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분당 650 피트 또는 200 미터까지의 롤페드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 속도와 우월한 품질의 결합이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를 시장에서 8, 12, 16 페이지 시그니처를 위한 시장에 있는 잉크젯 웹 프레스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만들었다. 프로스퍼 5000 XL 프레스는 한 달에 1억 2천만 장(A4 기준) 인쇄 작업이 가능하며 넓이는 24.5인치까지다.

시장으로의 더 빠른 시간, 오프셋 인쇄 품질과 자동화된 재고 인공 주입으로 머큐리는 McGraw Hill Education, Pearson, Houghton Mifflin Harcourt 과 다른 회사들을 포함하는 가장 큰 교과서 인쇄 사업자와의 그들의 이미 엄청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머큐리의 오퍼레이션 부사장인 크리스찬 샴베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트렌드는 출판사들로부터 그들의 재고를 줄이고, 더 맞춤화되도록 만들고, 교과서의 가격 포인트를 낮추라는 지시를 포함하고 있다”며 “프로스퍼 5000 XL 프레스로 우리는 고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양의 제품을 그들이 원할 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코닥의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의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인 빈스 페라로는 “책 출판사업자들이 그들의 고품질 인쇄 기준을 유지하면서 더 짧은 운영 길이와 맞춤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는 머큐리를 산업 내에 가장 강력한 인쇄사업자 중의 하나로 강화시켰다”며 “고객들이 그들이 재고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시간에 디지털 프레스의 새로운 세대는 그들이 필요할 때 합리적인 가격 포인트로 비용 효과적이고 고품질의 책들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하이델베르크, 4000번째 수프라세터 CTP 판매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4000번째 수프라세터가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인쇄판 출력을 위한 CTP 시스템으로서 수프라세터 162가 비슬로호 발도프 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장에서 벨기에의 고객인, Smurfit Kappa에게로 넘겨졌다. 이전 모델들인 트렌드세터, 프로세터와 탑세터를 포함해 하이델베르크는 1997년 이후 전 세계 1만대 이상의

CTP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고객이 투자한 중요한 기준들에는 완벽히 어울리는 사피라 인쇄재료와 프라빅 인쇄 회사 워크플로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었음을 뜻한다. 하이델베르크 서비스 부분 이사회 임원인 Marcel Kiessling은 “수프라세터 시리즈는 업계 내 선도적인 CTP 시스템으로 하이델베르크가 직접 개발한 레이저 기술이 특별한 장점이다. 그 성공은 하이델베르크는 전 세계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러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Smurfit Kappa 사의 Patrick De Jaegere 공장장은 “우리는 하이델베르크가 인쇄 산업 내 최고라고 믿는 최신의 솔루션과 고품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수프라세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 하이델베르크, 프린트차이나2011에 참가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열렸던 Print China 2011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는 전시회 기간동안 고객들의 관심으로 4500건 이상의 제품 문의가 있었으며 그린 프린팅 솔루션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전했다.

하이델베르크의 번하르트 슈라이어 CEO는 “프린트 차이나 전시회에 대한 고객 참여가 높았고 고객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올해 가장 중요한 전시회인 Print China 2011의 성공적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중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한국, 인도 및 타이완 등에서 참여한 약 15만명의 방문객이 프린트 차이나 전시회를 방문했으며 하이델베르크는 고성능(HDI Performance) 고부가가치(HDI Value)의 모토 아래 2500 평방미터 부스에서 최신의 기술과 서비스를 갖춘 인쇄 회사가 비용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인 인쇄 작업으로 어떻게 수익을 거두는가를 보여주었다. 슈라이어 회장은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드루파(drupe)와 함께 프린트 차이나는 중요한 전시회가 되었으며 중국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할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인쇄 매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며 하이델베르크에게 한 국가로서는 최대의 시장이다.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하이델베르크 부스에 방문한 고객들은 효율적인 패키징 인쇄, 창의적 인쇄 작업으로 차별화, 단통 칼라 인쇄, 웹 투 프린트 및 친환경 인쇄 등 시장의 최신 경향에 맞는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이델베르크는 전했다.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웹 투 프린트를 체험했으며 종합적 워크플로 통합, 사피라 인쇄 재료 및 다양한 트레이닝과 컨설팅 서비스가 제품 구성을 지원했다.

하이델베르크는 중국에서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2010년 4월부터 시작했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최고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중국 내 프린트 미디어 어카데미는 중국 인쇄 시장을 위한 심층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하워드헌트그룹, 코닥 프로스퍼5000XL 설치

Howard Hunt 그룹은 최근에 켄트, 다투포드에 있는 그들의 23,200㎡에 달하는 작업장에 코닥 프로스퍼 5000XL 프레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과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마케팅 서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워드헌트그룹의 관리 총괄자 어시스턴트인 루시 에드워드는 “우리가 코닥 스트림 기술이 다이렉트 메일을 혁신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프로스퍼 프레스를 더하는 것은 우리 회사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했다.

하워드 헌트 그룹은 올바른 채널을 통해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한 시간에 전달하는 것을 이어 그는 “프로스퍼 프레스의 속도와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데이터와 디지털 마케팅의 지능적인 사용과 결합되었으며 이것은 이 기기가 우리의 고객들이 모든 채널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코닥마켓머버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솔루션 팀은 헌트그룹의 원활한 프로스퍼 프레스 활용을 적극 지원, 디지털 진단 서비스를 그 프레스를 설치하기 전에 실시 했으며 헌트 그룹의 사업 전략을 유효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공요소들을 정의하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도와주는데 필요한 행동들과 투자대비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추천하기 위해 이 그룹의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코닥의 디지털프린팅 솔루션 부문 지역 비즈니스 매니저인 마크 클라크는 “우리는 하워드 헌트와 우리의 장기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그들의 다이렉트 메일 사업을 혁신시키고 구성하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코닥 프로스퍼 제품 라인에는 임프린팅 시스템과 다이렉트 메일, 카탈로그, 잡지, 신문, 끼워 넣는 광고, 거래 문서들을 위해 코닥 프로스퍼 S 시리즈와 책과 다이렉트 메일을 위한 코닥 프로스퍼 1000, 책, 다이렉트 메일, 카탈로그, 끼워 넣는 광고, 잡지를 위해 코닥 프로스퍼 5000XL이 있다.

www.prosper.kodak.com

PHOTOBOOK
STAR BOOK

성진애드컴, 스타북
**다양한 템플릿 활용
손쉬운 제작 등
편의성 눈길**

(주)성진애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자사에서 런칭하고 있는 스타북이 소비자 및 관련업계로부터 호응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간편하고 다양성을 내세운 스타북은 베이비, 일상, 여행, 연인, 웨딩 등 주제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타북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몇 가지 틀에 사진을 끼워 넣는 기존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진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집툴과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디자인 소스를 통하여 고품질의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차별화된 점이다.

47가지 형태로 구분, 압축앨범형도 선보일 예정

스타북으로 출시되는 포토북 제품은 크게 47가지 형태로 베이비 브로슈어, 소프트커버 스타북, 하드커버 원단맞춤형 스타앨범, 하드커버 인쇄맞춤형 스타앨범으로 구분되며, 압축앨범형대는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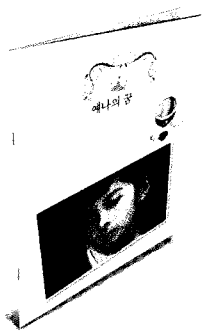
기본 템플릿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며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기 원하면 수정, 추가하여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포토북 프로그램으로 사진 자동배열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작업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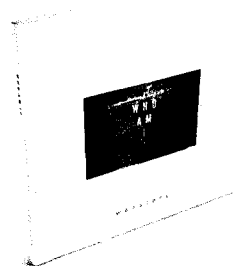
능해 고객의 신속한 납기 요구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웹하드, USB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작업과 이동이 가능해 작업 장소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무료 다운로드 가능, 전시회 통한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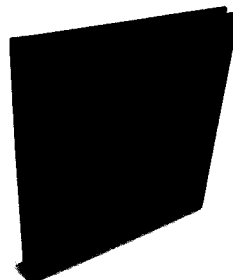
성진애드컴의 관계자는 "홈페이지(www.dtpia.com)에서 가입을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포토북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쉽고 간편하게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다"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프로그램 활용가이드를 통해 동영상으로도 제공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베이비 브로슈어



소프트커버 스타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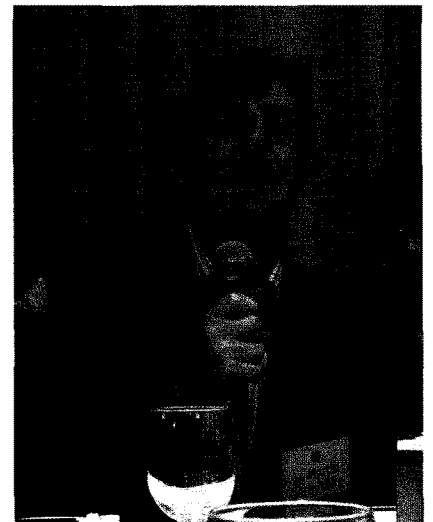


원단맞춤형 스타앨범



인쇄맞춤형 스타앨범

신도리코, 글로벌 신제품 발표 디자인 혁신 통해 사무기기의 가치 향상 도모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지난 4월 26일 서울 롯데호텔 ‘글로벌 디자인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2011년형 신제품 라인업 (A400/M400 시리즈)을 전격 공개했다. 신제품은 글로벌 디자인과 세계 특허의 기술력으로 완성되었으며 초일류 글로벌 기업 도약의 초석을 마련할 야심작으로 소개됐다. 이날 공개한 초소형 레이저 프린터 ‘A400 시리즈’와 세계 최초로 A3 기능을 탑재한 A4 복합기 ‘M400 시리즈’는 A4 출력이 많고, 컬러 스캔 니즈가 높으며 친환경과 디자인을 우선하는 시장의 변화에 꼭 맞춘 라인업으로, 분당 25매급의 컬러 스캔/복사/출력이 되는 3 in 1 ‘M400’, 팩스기능을 추가하고 분당 25매부터 36매까지 출력속도를 다양화한 M401/402/40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신도리코는 밝혔다.

세계 특허 출원한 M400시리즈

M400 시리즈는 ‘A3 솔루션’으로 현재 세계 특허를 출원했다. A4 복합기에서 최대A3 원고까지 원터치 버튼으로 자동 컬러 스캔되는 신도리코만의 독보적인 기능으로 스캔 이미지를 PC나 USB에 저장하는 것은 물론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A4 사이즈로 축소 복사도 가능하다. A400, M400시리즈는 지난 3월 독일 ‘레드닷 어워드 2011’의 국제적 권위의 디자인 상을 받았으며 A400은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2010’과 함

께 2관왕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는 영국의 디자인 그룹 ‘탠저린(Tangerine)’과 파트너십을 맺고 디자인의 완성도 높인 결과이다.

디자인과 기술 조화 이룬 신도리코

이번 발표회를 위해 특별히 방한한 탠저린의 최고 경영자이자 세계적인 유명 디자인 컨설턴트인 마틴다비셔(Martin Darbyshier)는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을 강조하지만 기술적인 한계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디자인을 타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데 신도리코는 최초의 디자인 콘셉을 양산 제품으로 이끄는 제반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신도리코 최고경영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와 앞선 디자인 시각으로 완성한 신제품이 곧 세계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도리코 표희선 사장은 “신제품 라인업은 창립 이래 50여 년간 쌓아온 A3 복합기 기술과 지난 10년간 500만대를 수출해온 A4 복합기 기술력을 융합, A4 복합기의 합리적 가격과 콤팩트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A3 업무환경에 대응하고 제품 내구성과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M400시리즈는 소형 복합기 업계에 진정한 비즈니스형 제품의 탄생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